

# '이웃과 함께하는 한가위' 교계 후원손길 분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교계 복지관을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음복지관은 28일 자원봉사자들과 송편과 밀반찬만들기를 행사를 펼친다. 그동안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에게 실시해 온 밀반찬 나누주기와 함께 직접 만든 송편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로복지관도 추석맞이 송편 나눠 드리기 후원자를 모집 중이다. 10월 1~2일 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만든 송편을 나누주게 된다.

옥수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에서는 24일과 29~30일 지역내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추석선물을 이 교계 복지관을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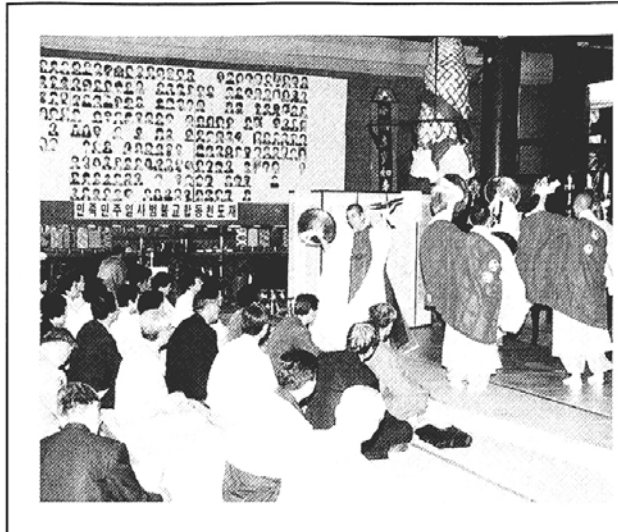
김음복지관은 28일 자원봉사자들과 송편과 밀반찬만들기를 행사를 펼친다. 그동안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에게 실시해 온 밀반찬 나누주기와 함께 직접 만든 송편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로복지관도 추석맞이 송편 나눠 드리기 후원자를 모집 중이다. 10월 1~2일 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만든 송편을 나누주게 된다.

옥수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및 독거노인을 초청해 소책자마을 대운동장에서 98한가위 경로대잔치를 준비중이다. 대구지부의 전회는 22일 한복입기, 지방쓰는 법, 공수법, 절하는 법 등 '차례지내기 무료공개강좌'를 실시하기도 했다. 매년 명절때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쌀과 지원금 등을 후원해 오고 있는 범어사도 추석을 맞아 이웃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가위를 앞두고 교계 복지관과 사찰을 중심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나누기 행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은자 기자  
(eje@buddhania.com)



## 장애아동요양시설 상락원 착공

중앙승가대학교 기원학사가 장애아동요양시설인 상락원으로 거듭난다.

중앙승가대 부설 사회복지법인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은 학교로부터 기원학사의 재건축 보수공사 허가를 받아 19일 오전에 착공식을 거행했다.

장애아동 56명의 보금자리가 될 상락원은 단순한 복지시설 중실 차원이 아닌 강원도 횡성에 건립되는 승가원 종합복지타운 계획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의 대규모 예산지원

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락원은 대지 2천2백15평, 연건평 1천2백40평의 지하층, 지상 2층 규모로 모두 6억여원의 건물 개보수비가 소요될 예정. 지하층에는 식당 세탁실 목욕실, 지상층에는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과 의료센터 상락원이 들어서며, 지상2층에는 사회복지정보센터와 자원봉사인원 등이 들어선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 민족민주열사 범불교천도제

민족민주열사를 위한 범불교 합동천도제(준비위원장 설경)가 1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천도제에는 천도제위원장 설경, 민중민주열사추진위원장 이창복, 민족정기수호협회 이수갑 대표 등 2백여명이 참석해 가운데 태극기를 흔들고, 민중민주열사추진위원장의 집전과 시연에 의해 범종, 시련, 대령, 관공, 신장박, 불공, 사적, 봉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 뉴스 & 뉴스

### 포교사연수 1천명 참가

98년도 하반기 조계종 포교사 연수교육이 12, 13일과 19, 20일 서울을 비롯 전국 6개 지역에서 1천여명의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수교육은 '포교사의 사명', '불교와 환경', '21세기 신문명과 불교' 등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정성운 기자

### 평불협 발전 전체회의

조계종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박타)는 14일 동부성에서 평불협 발전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4월 출범이후 1천7백96명에 달하는 금강국수공장 후원회원 가입현황과 9천60여만원의 모금액을 공개했다. 또 평불협은 (주)에머리스정보통신과 연계해 평불협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북한불교와 남북불교교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 한성포교원 후불명화 점안

한성포교원(주지 법능)은 12일 오전 포교당 이전을 기념해 '후불명화 점안식' 및 '일승법음신종타종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탄성스님, 동국대학교학원 동림동문회장 차용스님, 중앙구사암연합회장 경천스님, 수효사 주지 무구스님, 보문사 주지 정진스님, 국민회의 이상수 국회의원, 수곡사 합창단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은자 기자

### 23일 마·창 시민대법회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경호스님)는 23일 오후 2시 KBS창원방송에서 경계산 극북 기원 시민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철용스님(파계사 성전암 주지)이 DIF를 극복하는 지혜의 법문을 설할 예정이며 창원시립무용단의 공연, 실직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1천만원이 전달된다. 이은자 기자

### 타태아기령 천도사경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29일 한강 공나루 수상법당에서 제3회 '타태아기령 천도사경 연합법회' 21개 입재식을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신홍사, 정토사, 길동관음의집, 방생선원, 사천왕사, 한강공나루수상법당 연합으로 마련됐다. (02)723-6258 김재경 기자

### "정치수배자를 가족품에"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회장 진관스님)는 13일 조계사 마당에서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 법요식, 희망사·꽃다지 노래공연, 한홍련 단편 정치수배자 오감극, 어머니 편지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또 '젊은 아들, 딸들이 다가오는 한가위를 가족의 품에서 보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제하의 발원문 낭독과 정치수배자 수배해제기원 조계사 경내 촛불행진이 있었다. 도필선 기자

# TV·신문 불교왜곡 잇달아

### SBS-일간스포츠 등... 대중매체 모니터활동 절실

TV와 신문에서 불교를 폄하 또는 왜곡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불교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활발한 모니터 활동을 통해 왜곡을 바로잡는 한편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달하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SBS가 13일 저녁 8시뉴스에 보험금을 노려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용의자인 아버지가 불교인임을 인식케해주는 장면을 내보내 불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SBS는 이날 뉴스에서 용의자의 방면 앞에 불어있는 불교만(亂)자를 화면에 가득 차도록 클로즈업하여 내보냈다.

이에 대해 보리방송모니터회는 "사건 내용과 절단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교 만(亂)자를 천천히 크게 클로즈업한 것은 불교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한 행위"라며 SBS에 항의했다.

SBS는 이에 앞서 3일 전승공예대전 대동령상 수상작품인 '간질지불' 보도와 관련해 "불상은 생물이 아닌 불교의 상징으로 볼 수 없어 80년대 중반부터 공예대전의 출품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기도 했다. 불상의 출품이 제한된 것은 82년 한차례 있었으나, 그후로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불자들의 항의에 대해 SBS 8시 뉴스팀의 한 관계자는 "종교적 편견으로 보도화면을 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 '일간스포츠'는 '도시유혹'이란 연재만화에 무덤이 짙으로 만든 인형을 바늘로 찌르며 음미나비매움 진언을 외우자 한

남자가 죽는 모습을 14~16일치 신문에 실었다. 조계종총무원과 진각종총리원이 이에 항의하자 사과문 게재를 약속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대중매체에 의한 불교 왜곡· 폄하 사례가 빈번하므로 범종단 차원의 매체모니터팀의 구성 또는 기존 모니터모임의 지원을 통해 상시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체계가 필요하다.

보리방송모니터회 김재일회장은 "매체종사자의 불교에 대한 이해부족이 의도하지 않는 실수를 가져온다"며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각종 연수의 확대, 책자 보급을 활발히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 노인요양원 '반야원' 개원

### 신홍사 속초시에... 50명 수용 무료치료

신체적·정신적 요양이 필요한 불우노인들을 무료로 입소시켜 숙식은 물론 치료와 안식을 제공하는 노인요양원 '반야원'이 문을 연다. 신홍사복지원(대표이사 도후스님)은 26일 오후3시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5168번지에 '반야 노인요양원' (원장 홍구스님)을 개원한다.

속초 양양 고성 간성 지역 거

주 무의탁노인 50명을 수용할 반야노인요양원은 1천 77평 부지에 지하층, 지상2층, 연건평 3백18평 규모로 건립됐다.

반야원은 물리치료실과 오락실, 독서실, 보호실 생활실 등 50명 수용규모의 시설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보조원 세탁부 등 노인요양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있다. (0392)635-9445 김재경 기자

## 포교대상 추천자 접수

### 조계종포교원은 제 10회 포교대상 추천자를 다음 달 7일부터 11월 5일까지 접수한다. 추천분야는 일반포교(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일반신도), 특수포교(군, 경찰, 공무원, 교정교화, 장애인, 국제, 방송인론, 문화예술, 출판), 기타 포교분야이며, 분사 주지스님 또는 신도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포교활동 공적서, 후보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12월 5일. 정성운 기자

## 26일 나옹백일장

### 신록사·여주교육청

제1회 나옹백일장이 26일 오전 10시부터 여주 신록사 주최로 경기도 여주 교육청에서 열린다.

이번 백일장은 신록사(주지 세영)가 경기도 여주 교육청과 공동으로 과거 나옹화상과 묵은이 색 등 문인들의 교유 중심지였던 지역문화회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백일장은 여주군 내 초·중·고등학교 4백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시 산문 2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도필선 기자

## 실업자 울리는 사기

도대체 어떻게 이런 회대의 사기극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승려들의 행(行)을 단속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 발견된다. 전과 8반으로 지난해 12월 교구부신인 부서에서 산문출승과 5년 공권정지처분을 받던 다른

문종으로 옮기는 편법을 이용하여 같은지역에서 이같은 일을 저질러 왔다.

이미 징계를 받아 승려로서 모든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버젓이 스님행세를 해온 것은 종단의 호법기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일단 징계를 받았거나 문제있는 승려에 대한 집중감시체계가 감구되지 않는한 제2, 제3의 무선은 계속 나

타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지역 불교계에 망신살이 뻗었던 것은 그만큼 더러워진 불교계는 원천에 달린 격으로 회대의 피해자가 됐다.

신용하는 증생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주름살만 늘렸으니 이 업은 누가 지고 살 것인가?

(wkim@buddhania.com)

## "조상의 산소자리가 좋으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종합의 축복이 있는데 반하여, 나쁘면 질환과 패망을 가져오게 하는 음력(산소)풍수사상!"

### "지금 조상님의 산소가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산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사업에 망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어려웠던 일들이 풀리고, 간절하게 원했던 소인들이 이루어지고 병환이 깊은 사람들이 완쾌되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오고 있음에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께서 베푸시는 크나큰 가피력일 것이라는 생각뿐입니다.

**방법** 산소 좌,우와 앞쪽에 봉분은 건드리지 않고 佛法(불법)을 묻어드리는 방식입니다.

1. 황동판 깔래면다라
2. 황동판 금강경신타다라니
3. 황동판 묘법연화경다라니
4.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조성한 금강경신타다라니
5.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조성한 묘법연화경 다라니다라니

◆ 1,2,3번은 황동판위에 새겨진 만다라와 탑다라니가 산소를 바라보도록 세워져 놓습니다.

◆ 4,5번 공단천안에는 위패를 써서 행하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안치시킨후 묻어드립니다.

<이때 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름, 써서 넣은 분들에게만 주로 발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이름과 자녀들 이름들 같이 써넣는 것이 좋습니다.>

**성지관음회** (회장: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부산 : 보문포교원 ☎(051)864-3740

“모든 풍수지리가 미신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할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본 산소처방으로 믿지 않을 수 없는 사실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기에 일단은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떠한 경우이든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자신의 직계조상님 한분 산소만이라도 해드려보시고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산소 1봉(기) 처방비용 : ₩400,000 (합장이나 쌍봉은 1봉로 봅니다)

##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 테크핀과 멘틀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성식품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제동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낫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에 간단하게 적용하면, 힘의 회복, 몸의 회복, 악취제거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배앓이 고통이 있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바짝해가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나포 감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